

기업 지원, 창업 준비단계 부터

탄소산업진흥원-중기벤처부, 예비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지원 함께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손잡고 기업의 창업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지원시스템을 가동기로 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 후에도 안정된 기업경영에 힘이 될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각각 3년, 5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

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진흥원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과정에서의 기본지식과 경영정보를 제공 하는 교육, 전담 멘토링 지원 등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탄소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친환경 모빌리티(자동차·항공·선박 등),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등) 등 그린경제 분야 예비창업 국내 기업 20개사를 향후 공모로 선정, 총 13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진흥원은 3년 이상 7년 미만에 있는 전국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극복 기업 성장 디딤돌 프로그램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초기기업들이 창업 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기업당 평균 1억원)은 물론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수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즈니스모델(BM) 진단, 세일즈 프로모션 프로그램, B2B 마케팅 지원 쇼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향후 2년간 정부지원금 45억원과 투자지원 25억원

등 총 76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바이어 매칭 등 투자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기업별로 투자금을 확보할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은 이에 앞서 그간 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에 총 128억 원을 들여 120개 기업을 투입한 결과, 매출 1,942억원, 고용 910명, 투자유치 115억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방윤혁 원장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부장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기업지원 사업도 집중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북도내 6개 농축협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농업인 실익증진 노력에 감사”

2020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서
도내 6개 농축협 '최우수'·'우수' 쾌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북도내 6개 농축협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지난 22일 전북농협 대강당에서 자체행사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이안기), 우수상은 완주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 남원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 익산원에

농협(조합장 김봉화), 무진장축산농협(조합장 송계근), 전주주계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이 수상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업적우수사무소 수상을 축하하드린다"며 "디지털 농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청년조합원 확대에도 다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이주현 전북조달청장

진우 에스엠씨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3일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인 (주)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를 방문해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익산에 위치한 (주)진우에스엠씨는 소방차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360° 회전 탑승함'을 적용한 직진복식 소형인명구조용 소방차'가 올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2020년 제5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주)진우에스엠씨의 '360° 회전 탑승함'을 적용한 직진복식 소형인명구조용 소방차'는 텔레스코픽 불대를 이용한 소형사다리차로, 기동성과 구조효율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이주현 청장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23일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가운데)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번개출장세차·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결실'

국민연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대상' 2년 연속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대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한 우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공단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번개출장세차 서비스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번개출장세차는 공단을 포함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세차에 필요한 차량과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출장세차 자활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역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909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취약지점 무사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 소득보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개발해 지역문제 극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를 협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 만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월 10만원 이내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 여건이 부족한 청소년 250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안전용품 후원으로 지역사회 생활 환경에도 큰 도움을 줬다.

박정배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최근 5년새 노란우산

재적가입자수 2배 늘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 각 지자체는 노란우산 가입자를 도모하고자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 가입장려금(이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최초 시행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돼, 최근 5년간 노란우산 재적가입자수가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희망장려금 지원에 힘입어 노란우산 재적가입자수는 2015년말 59.2만명에서 2020년말 138.4만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 1년 6개월만에 가입자가 3만명에서 5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산 등 효과가 높아 매년 지속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지난해 보다 약 10.2% 증가한 398.7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인천 계양구 등 광역지자체 지원에 이어 기초지자체도 추가 지원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이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해외 체크카드 출시 준비 끝' ... 신한, Visa와 협약 체결

내달 신한 체크카드 출시 예정
기념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이제 해외 결제 시에도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중앙회(회장 김문식, 이하 신한)가 세계적 인 결제 기술 기업인 Visa와 손잡고 오는 4월 중 첫 번째 해외 체크카드를 선보인다.

신한은 지난 22일 신한중앙회 서울 사무소에서 Visa와 '신한 체크카드 해외결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중앙회 송재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Visa Korea 파트너인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해 신한 해외 체크카드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Visa는 신한에 ▲Visa 라이선스 및 결제 네트워크 허가 ▲마케팅 노하우 공유 ▲신규 해외 체크카드 관련 공동 마케팅 진행 등을



지난 22일 신한중앙회와 Visa Korea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자 편의성을 높여주게 됐다.

신한의 첫 번째 해외 체크카드는 오는 4월 출시 예정으로, 이를 기념한 동성향 고객 감사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근 신한중앙회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최근 국내 온·오프라인 결제는 물론 해외 직구까지 카드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며 해외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Visa와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원활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 앞으로 소비자의 라이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체크카드를 선보이며 합리적이고 즐거운 소비 생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 실현

농진청,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발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10대 과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데이터(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이하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디지털농업 기술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는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유통, 소비, 정책을 지원하는 디지털 농업기술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첫째,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자체 보유한 농업 데이터를 전면 개방, 공유하고 디지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현장의 생육·환경·기상 및 수량·품질 데이터와 연구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한, 농업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농축산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8개 분야 12종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대폭 확대한다.

둘째, 농업생산 기술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농업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개발해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디지털 농업을 구현한다. 곡물 생산 기술과 관련해 드론,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 개발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축산분야 최적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예 분야에서는 노지에 민감한 채소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 및 작물 초기 예측 기술을 개발해 수급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센서, 영상 데이터 분석으로 정밀 사육체계를 구축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로 정책을 지원해 공익직불제 안착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농촌 3.6.5 생활권 데이터 구축으로 농촌의 정주 기반을 확충해 농촌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시군상생정담' 고창서 개최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 농협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함께 지난 22일 고창군지부에서 2021년 고창군 상생정담 '고창군 특색사업 및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생정담은 고창군 지역특색사업 및 21년 지자체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고창군 농업·농촌 발전과 함께 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창 관내 농·축협조합장, 조공법인대표, 농업 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창군 지역 특화작목 육성, 전속출하농가 조직화교육, 품목별 상품화 기반시설 확충, 고창군 공동브랜드 '높을고창' 통합마케팅 추진을 통해 2021년도 사업실적 500억 달성을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창군은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건설을 목표로,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농수축산경제국을 수석국으로 개편하고 농생명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을 추진해 왔다.

유기상 군수는 "농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고 원예, 양곡, 축산분야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원을 통해 농업인 모두가 잘사는 고창 만들기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생명산업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진기영 지부장은 "상생정담을 발판으로 고창군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밀접한 농정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